이사야 조직신학 IV, 교회

(이사야 32:1~20)

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19.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사야 조직신학 IV,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사야 조직신학 IV, 교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사야 조직신학에 따르면 교회는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며 사는 사람들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은 세상을 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보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고 있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교인이란 세상을 보고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만사를 젖혀놓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문제가 생겼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사업의 문제를 젖혀두는 것입니다. 사업문제를 잠깐 놔두고 우선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계획으로 처리해 가시는지 볼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교인이라면 일단 자녀의 문제를 젖혀둔 채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건강이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 위암 말기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마음은 암으로 인해 죽게 될 몸만을 바라보게 되고 죽어가는 몸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이라면 병든 몸을 젖혀두고 우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나면 말기 암에 걸린 상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암에 걸린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인과 교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만사를 젖혀두고 먼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면서 이 세상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도를 닦거나 수련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만사에 대해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대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이 부어지는 대상이 바로 교회이자 교인들입니다. 앞서 보았던 2절에서는 예수님을 뜻하는 '또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예수님께로 피난 갈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3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려하지 않고 찾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기에 하나님을 보게 하고 찾는 방법으로써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15절 하반부를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업이 잘되어서 손님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된다는 것일까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라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젖혀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젖혀둔 채 자녀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바라보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관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광야의 특징은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갈증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형통해야지, 우리 애는 잘 돼야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채워지기는커녕 늘 목마름만이 생겨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간혹 기대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얼마가지 못한 채 다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젖혀둔 채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은 갈증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늘 목마름만이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에서 하나님을 젖혀둔 채 바라보는 세상은 모두 다 갈증이 지배하는 광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삶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젖혀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며,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때에 광야였던 나의 삶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뜻하신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실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뜻하시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급하고 마음이 쫓기는 상황이더라도 만사 젖혀두고 하나님을 보기에 열중해야 합니다. 이들이 교회이고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숲은 자연의 열매를 제공하고 사냥터로 사용될 수는 있는 공간이지만 충분한 곳은 아닙니다. 이미 밭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당시에는 숲은 아름다운 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앞서 교회와

교인은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와 교인들은 그 아름다운 밭이 된 삶을 숲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12~13절을 보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밭'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기쁨의 밭'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지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와 다산을 기뻐한 결과로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와 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다운 밭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마음이 혹하여 다시 하나님을 젖혀두고 밭의 소출로 인해 기뻐하려고 한다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밭에 소출이 많아질지라도 교회와 교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기쁨으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밭에서 나는 소출이 나에게 더할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원하십니다.
밭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생겨난 기쁨에 보탤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이자 교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야 말로 교회와 교인의 특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17절에 나오는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2장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정의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손대시는 일이 공의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교회와 교인의 삶에서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는 변화산 사건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꿈꾸었던 일들을 모두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바쁘지만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여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사업까지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찼기에, 사업에서 생겨난 흑자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마치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숲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석서를 보면 이 말씀을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주어지기 전에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정도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사야의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2,700년 전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성읍이 파괴되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숲은 성읍을 둘러싼 지역입니다. 숲이 온전하게 유지될 때에 성읍도 안전한 거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이 우박에 상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용히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교인은 이 땅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조용히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당시의 안전함의 대명사는 숲이 둘러 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숲이나 성읍도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삶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읍이 파괴되고 숲이 우박에 상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허물어지지 않는 화평한 집과 상하지 않는 안전한 거처와 방해되지 않는 조용히 쉬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숲이나 성읍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젖혀둔 채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성읍이나 숲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들이 영원히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삶을 보장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읍은 파괴의 대상이며 숲은 우박에 상할 수밖에 없는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삶을 보장해준다고 생각되는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연금이나 은행에 저축된 거금이라든지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는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삶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자는 세상을 보는 자들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안전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공의회에 잡혀서 채찍에 맞고 갇혔을 때에도 마음에서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얼핏 물가를 밭으로 일구기 위해서 소와 나귀를 동원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와 나귀는 물가를 밭으로 만들기 위해 동원되어야 합니다. 밭이 완성되고 씨를 뿌렸으면 더는 소와 나귀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옥한 땅에서 금세 싹이 트고 이삭이 맺혀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소와 나귀를 몰아넣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자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모든 사람은 추수 때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인들은 씨를 뿌리면서도 추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 되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기쁨을 가졌기에 더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윈 소와 나귀가 있다면 새싹이 나는 밭으로 몰아서 먹게 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충해줄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뵐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뵙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겪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밭에 씨를 뿌려놓고도 그것에 희망을 두지 않은 채 굶는 동물을 가엽게 여길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이사야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인의 모습입니다. 한낱 짐승의 배고픔까지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미 희망이 필요 없는 지점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마음이 채워진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사야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씨 뿌린 옥토에 소와 나귀를 들여보내는 정신 나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밭을 일구었으면 울타리를 치고 허수아비를 세워서 참새 한 마리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낟알 하나라도 많이 거두기 위한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도 소와 나귀의 배고픔에 신경 쓸 정도로 여유로워집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인이고 교회입니다. 이사야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러한 교인과 교회의 모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광풍과 폭우처럼 내 마음에 쇄도해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죽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뵙게 해주시며 교인다운 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